

재능 TODAY

‘Talent On : Start’, 경쾌하고 담대한 새 출발 제56회 입학식,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첫 시작



학생 참여형 행사로 모두가 주인공

우리대학은 2월 25일 제물포캠퍼스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56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신입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신입생 1,3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입학식은 총학생회와 대의원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중심이 되어 기획·운영한 참여형 행사로 마련됐다. 13개 동아리가 함께 참여해 신입생들이 대학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에 앞서 학생자치기구는 개인 미션 프로그램인 ‘도전! 캠퍼스 QR 챌린

지’를 운영했다. 신입생들은 자율관·봉사관·혁신관에 설치된 QR부스를 찾아 모바일 학생증을 태깅하며 캠퍼스를 둘러봤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준비한 다과 200개가 빠르게 소진될 만큼 높은 호응을 얻었다. 단체 프로그램에서는 2026학년도 29개 학과의 특징을 알아보는 제시어 게임을 진행해 신입생들이 전공 관련 용어를 맞히며 학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진 본식에서는 ‘Talk! Talk! 재능’ 시간을 통해 학과 대표와 총학생회, 대의원회가 신입생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소통했다.

신입생 100% 모집, 다시 재능의 시대

올 2026년 신입생은 100% 모집을 달성하였다. 그동안 인구구조의 변화, 즉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축으로 모집인원을 모두 충원하지는 못했다. 전체 대학들의 공통된 어려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모집인원 1,237명을 모두 모집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대학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AI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선도대학에 걸맞는 노력을 전개하며 고등 직업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현해 온 결과라고 하겠다. 우리대학은 “모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유능한 인재로 양성될 수 있다”라는 ‘재능교육 스스로 학습철학’을 실천하는 대학이다. 학생의 행복과 성공을 교육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대학, 미래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평생직업교육대학이다. 올해 신입생들도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 재능과 창의력을 최대한 키워 각자가 목표로 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처음은 아름다웠다!

환영과 축제, 공감과 다짐의 어울림



입학식 당일 신입생들은 정문 앞 헤이영캠퍼스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재능관 1층에서 운영된 동아리 먹거리 부스와 심포니 동아리의 클래식 연주를 즐겼다. 또한 실용음악과 동아리들이 준비한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며 캠퍼스 곳곳에서 환영 분위기가 이어졌다. 행사장 입장 전에는 약손명가스킨 케어과와 화장품학과가 준비한 환영 선물도 받았다.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총장 서신과 대학생활 안내 자료, 취업지원체계 'J-ROAD9' 안내가 담긴 환영 키트를 제공해 대학의 교육 방향과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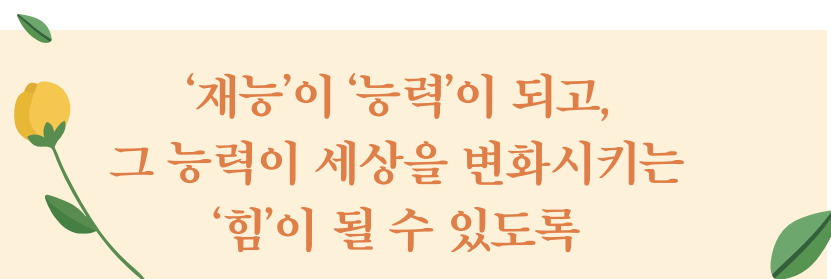
입학식 본 행사에서는 사전 설문을 통해 확인한 신입생들의 공감 단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응원 손수건을 들고 '재능 온'을 함께 외치며 대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학부·학과의 다채로운 신입생 환영 이벤트



대학 차원의 전체 입학식이 끝난 이후에는 학부와 학과의 시간이었다. 학부와 학과 단위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환영행사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다채롭게 이어갔다.

신입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생활에 안착하는 것이다. 강의 신청과 수강, 학과 운영과 교수님 소개 등을 비롯해 앞으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동시에 신입생들과 선배, 교수와의 친교의 시간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진행했다. 미래창업학부에서는 학부 차원에서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했고 호텔외식조리과에서는 교수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경품 추천, 올해 신설된 글로벌태권도학과에서는 비전 선포식을 학부모 설명회를 겸해 진행하였다.



사랑하는 예비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재능대학교가 준비한 미래 청사진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AI 시대를 선도하는 '준비된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재능대학교는 최근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AI 교육 혁신 대학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전공에 AI를 결합한 'AI-X' 교육을 통해 어떤 산업 현장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혁신 대학'에서 시작하십시오. 우리 대학은 '2025 세계혁신대학 랭킹(WURI)'에서 국내 전문대학 4위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재능대학교의 교육 방식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실무 역량을 쌓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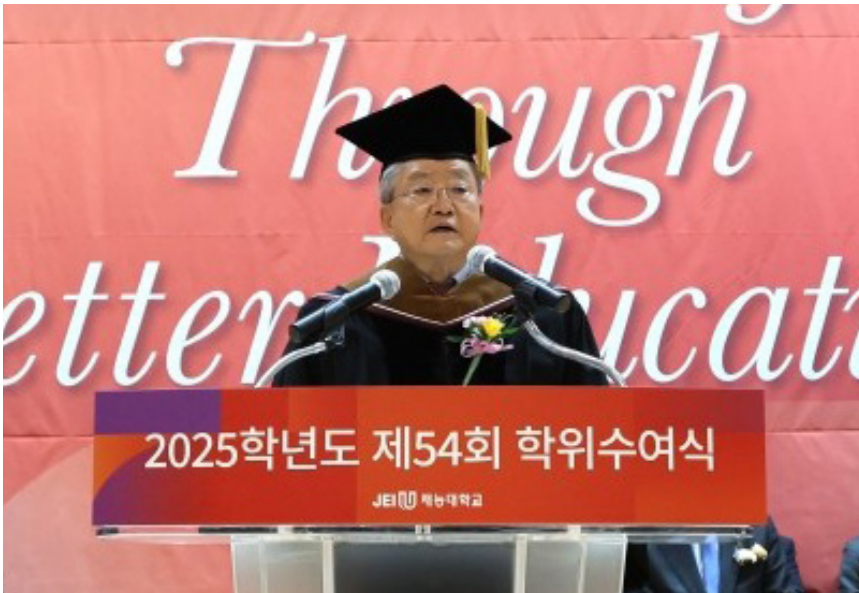
셋째, 평생의 자부심이 되는 '직업 교육의 요람'이 되겠습니다. 재능대학교는 단순히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전공이 평생의 업(業)이 되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글로벌 평생 직업 교육'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재능대학교의 문은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재능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이남식 총장 축사 중

제54회 학위수여식 개최, 897명 졸업

“A Better Life Through Better Education” 비전 아래
학사 151명, 전문학사 746명 졸업



우리대학은 2월 5일 재능관 5층 대강당에서 제54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성인학습자 113명을 포함해 총 897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재능학원 박성훈 이사장과 이사, 이남식 총장과 교직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인사, 졸업생과 가족들이 참석해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박성훈 학교법인 재능학원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주체적 인재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평생학습자로 그리고 세대와 기술, 세상을 연결하는 협업의 리더로 성장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로 졸업생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이남식 총장은 “새로운 시작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여 큰 꿈을 펼치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도성훈 교육감은 “AI,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하나의 방향으로 조율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며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졸업생들이 AI를 사용하는 사용자에서 지도자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거대한 전환점 앞에 인간다움을 지키며 평생 학습하며 연결과 협업의 리더가 되길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재능대학교에서 열정과 노력으로 일궈낸 값진 결실의 순간입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저는 세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AI 시대일수록 ‘인간다움’을 더 단단히 지키십시오. AI는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공감, 책임, 윤리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끝까지 묻는 태도입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둘째, ‘평생학습자’로 자신을 정의하십시오. 오늘의 졸업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배움의 방식이 바뀌는 시대의 시작입니다. 한 번 배운 전공과 기술로 10년을 버티는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규칙을 빠르게 익히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시대입니다.

셋째, 연결하고 협업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앞으로는 로봇과 AI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생산 방식도 크게 바뀔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람과 사람, 기술과 현장, 세대와 세대,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더 멀리 가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변화가 큰 시대는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가 큰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세상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세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박성훈 학교법인 재능학원 이사장 치사 중



우수기업 취업 등 재능의 날개 활짝 펴고 바이오생명과학과 졸업생 13명 셀트리온 입사 등 성공적인 사회진출

우리대학 졸업생들이 그간의 체계적인 현장맞춤형 전공직무교육을 성과 있게 이수했다는 반증이 들려오고 있다. 누구나 가서 일하고 싶었던 우수한 기업 등에 성공적으로 취업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서서 더욱 도전적인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바이오생명과학과 졸업생 13명이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셀트리온에 입사하는 쾌거와 함께 유통상품기획과 졸업생이 (주)농심, 화장품학과는 (주)한국콜마, P&K 피부임상센터, 간호학과는 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병원 등에 취업하는 등 취업의 질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재능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가져본다.

이남식 총장,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협의체 COLiVE 회장 선임

평생·직업교육 확대와 라이즈(RISE) 대응 통해
전문대학 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시



이남식 총장이 2월 21일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협의체인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COLiVE : Council for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of University College)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COLiVE는 “함께하는 삶”이란 의미로 핵심가치는 견고한 정부·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에 두고 전국의 평생직업교육기관과 함께 노력하는 ‘상생과 협력’,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꿈을 실현해 나가는 ‘도전과 혁신’, ‘나눔과 포용’, 사람을 중심에 두는 ‘희망과 행복’이다. 즉, 평생직업교육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평생직업교육의 전문성과 기능을 향상시키며 정부·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체다. 전문대학-지역사회-기업 상호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단체다.

이남식 총장은 그동안 AI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실 있는 산학협력과 평생·직업교육의 확대를 강조해 왔다. 특히, 이번 선임은 라이즈(RISE)의 전면 도입 상황에서 지역 기반 직업교육과 실무 인력 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대학은 미래창업학부를 중심으로 평생직업교육 선도대학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점유하고 있어 앞으로 코라이브와의 상생·협력도 기대된다.



2026년도 붉은 말의 해, 우리대학의 퀀텀 점프를 다짐

새해 첫날 AI·디지털 전환 특화대학 위해 드론쇼로 힘찬 출발

우리대학은 1월 5일 재능관 8층 게임 세미나홀에서 2026학년도 시무식을 통해 병오년의 힘찬 출발을 결의하였다. 우리대학은 WURI 랭킹 수도권 전문대학 2위 달성, 인공지능 혁신대상 종합대상 수상, AI 자체 개발 솔루션 ‘챗원더(ChatWonder)’ 개발 등으로 인공지능 선도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재정지원사업 성과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47억 원, i-RISE 사업 32억 원,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 7억 원 확보 등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대학의 재정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다. 그러나 여전히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급감과 AI·DX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구축, 학생 성공과 행복 중심 대학 구현 등 대학이 추진해야 숙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전체 구성원의 더욱 커지고 단단해진 힘과 지혜, 화합을 토대로 질적인 변화·발전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전체 구성원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진로·진학 전문 고교 교사와 입학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개최

지역 고교와의 긴밀한 연계 통해 우수 인재 유치

우리대학은 1월 6일 경원재 바이 워커히에서 ‘제3차 입학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고등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진학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인 입시홍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진로·진학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고교 교사들을 입학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시각디자인과, 실용음악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가 참여해 각 학과의 교육특징과 강점을 중심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I-RISE 사업 성공을 위한 'I-DX 아카데미' 구축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 위한 인천형 디지털 교육 생태계 조성
우리대학은 작년 12월 18일 재능관 604호에서 I-RISE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I-DX 아카데미' 현판식을 가졌다. 이는 인천지역 산업 맞춤형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 교육 인프라이다. I-DX 아카데미는 I-RISE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재직자 직무교육 전환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간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플렉스(HyFlex) 교육 환경을 갖췄다. 이는 산업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디지털 전환(DX) 교육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 I-DX 컨퍼런스 개최

I-RISE 사업 성과 공유와 고도화 위한 진지한 모색
우리대학은 2월 6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2025년 I-RISE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 I-DX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천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교육 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천대학교, 한국폴리텍Ⅱ대학 등 컨소시엄 대학과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산업체 관계자, 재직자 수강생 등 산업·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대학은 I-RISE 사업 고도화와 후속 직무전환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정진할 계획이다.



재능대-유타대-조지메이슨대,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 협력

첨단 게임 실습공간 구축한 우리대학에서 글로벌 대학 협력 간담회 개최
우리대학은 작년 12월 17일 제물포캠퍼스에서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와 함께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대학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외 대학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천지역 게임산업과 연계한 대학 기반 협력모델을 구체화했다. 특히, 게임 전공을 중심으로 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과 산학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을 확인했다. 글로벌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AI·디지털(AID) 산업을 선도하는 교육혁신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주)에이릭스와 드론 분야 인재 양성 MOU

인공지능 드론 영상처리 분야 교육과정 개발 협력
우리대학은 작년 12월 15일 (주)에이릭스와 인공지능 드론 영상처리 분야 인재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에이릭스는 드론 개발·제조 기업으로 방위산업을 비롯해 물류, 건설, 보안 등에 활용되는 드론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해외 시장에 드론 부품과 완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 드론 영상처리 분야 인재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및 산학 공동 기술·연구·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로컬 아이디어 챌린지 & 크라우드펀딩 워크숍' 개최

지역 현안 기반 로컬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우리대학은 12월 22일 재능관 이벤트홀에서 '2025 로컬 아이디어 챌린지(해커톤) & 크라우드펀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한 로컬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커톤 방식의 아이디어 도출 과정과 크라우드펀딩 분석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운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대학과 경인여자대학교 재학생 등 약 150명이 참여해 지역 문제 해결과 로컬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재능대인천대, '2026 인천 RISE 인재 컨소시엄 공동 성과공유회' 개최

우리대학 '인재 바이오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 등 수상
우리대학과 인천대학교는 2월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2026 인천 RISE 인재 컨소시엄 공동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양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RISE 사업 단위과제 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대내외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인재 바이오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는 우리대학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인병원과 임상실습과 인재 양성 등 산학협력 MOU

인천 유일 보건복지부 지정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긴밀한 협력 우리대학은 1월 9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과 산학협력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리대학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한 임상실습 협력을 비롯해 지역사회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인병원이 의료·문화·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스포츠재활과, 호텔외식조리과, 실용음악과 등 다양한 학과와의 연계 협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재능대-패션그룹형지-핵사휴먼케어, '시니어 에이지테크 로봇 복지 생태계 구축'

'로봇 케어 매니저' 전문인력 양성과정 단계적 추진 우리대학은 1월 23일 재능관 대회의실에서 패션그룹형지, 핵사휴먼케어와 함께 '시니어 에이지테크 로봇 복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로봇 기술에 패션과 교육 역량을 결합한 '완결형 시니어 로봇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술 상용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스포츠서울과 웰니스 사업 협력 MOU

웰니스·스포츠·문화 분야 중심 미디어·교육 협력모델 구축 우리대학과 스포츠서울이 12월 22일 웰니스를 매개로 한 미디어·교육 협력모델 구축을 목표로 웰니스·스포츠·문화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웰니스와 스포츠가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웰니스·헬스케어·스포츠재활 등 실천 중심 교육 역량을 축적해 온 우리대학과 웰니스를 미디어의 주요 가치로 확장해 온 스포츠서울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 '융합 3D 의료설계 과정' 훈련생 100% 수료 7개 기업 참여, 의료·바이오와 3D프린팅 기술 융합

우리대학은 작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융합 3D 의료설계 실무자 양성과정'에서 훈련생 전원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되어 우리대학 바이오테크과를 중심으로 (주)시안솔루션을 포함한 총 7개 기업이 참여했다. 의료·바이오 분야와 3D프린팅 기술을 융합한 실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I-RISE 글로벌 교류사업 연계 '글로벌 뷰티·미디어 교류 페어' 개최 K-뷰티 트렌드 반영 교육협력 강화

우리대학은 1월 15일 중국 기업 및 교육기관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해 '글로벌 뷰티·미디어 교류 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련되어 K-뷰티 트렌드를 반영한 메이크업·헤어·스타일링 중심의 현장형 교육과정, 사진영상미디어과는 사진·영상 제작과 콘텐츠 기획·편집에 특화된 실무교육 시스템 소개 등을 진행했다. 중국 산동화외건의중의보양그룹, 제녕시 박윤기우 전계 교육컨설팅(제녕) 유한회사, 제남 만지학교, 예미 직업기술훈련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매치업 성과공유회', 항공드론 직무교육 성과 조명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매치업' 사업 성과 발표 우리대학은 작년 12월 18일 송도 오크우드 호텔에서 '제3회 매치업(Match業) 성과 공유회 및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매치업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남식 총장을 비롯해 김영신 인천광역시 항공과장,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본부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이기우 경인방송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강창봉 본부장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드론산업 진단과 미래 드론산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남식 총장, 인천경영포럼 우수기업인 4명 총장상 시상
우리대학 학생 2명, 인천경영포럼 장학금 수혜

우리대학 이남식 총장은 작년 12월 11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2025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주요 기관장, 각 대학 총장, 언론사 대표 및 기업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기업인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이남식 총장은 재능대학교 총장상을 우수기업인 4명에게 직접 수여했다. 또한 행사에서는 인천경영포럼 회원들이 조성한 총 20,500,000원의 장학금을 장학생 41명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에 우리대학 재학생 2명이 수혜하는 기쁨을 누렸다.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16주간의 ‘미국·호주 현장학습 프로그램’ 통해 글로벌 직무역량 강화 우리대학은 1월 19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해외취업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2025 미국·호주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해외취업 역량강화사업으로 전공 기반 글로벌 실무역량과 해외 취업 준비 능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8월 20일부터 16주간 진행됐다. 김수진·김유리(간호학과) 학생은 해외 교육기관에서 수업과 실습을 통해 전공 실무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현지 교육·산업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직무 이해도를 넓혔다.



(주)푸름인재개발원, 장학금 600만원 기탁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지원, 미래 IT 인재 양성 힘 보태 우리대학은 2월 4일 (주)푸름인재개발원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이번 장학금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재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장학금 수여식에는 이남식 총장과 서연경 학과장, 학과 재학생 18명이 참석했다. 이남식 총장은 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한 (주)푸름인재개발원에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푸름인재개발원 측은 학생 대표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



RISE 연계 ‘AI·DX 역량 강화 특강’

이상석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DX거버넌스협의회 회장) 초청 우리대학 RISE 사업단은 1월 19일 재능관 대회의실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AI·DX 기반 교육 혁신사례와 2026년 전문대학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했다. 강사는 이상석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으로 DX거버넌스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특강은 인천광역시와 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I-RISE)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AI·DX 기반 교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략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외국인 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특강

SDGs 기반 세계시민의식 함양 우리대학은 작년 12월 16일 제물포캠퍼스 창의관에서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특강을 개최했다. ‘상호연결된 세계에서의 책임 있는 삶’을 주제로 인천시 최윤경 장학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강의는 외국인 학부생들이 각자의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세계시민의 의미를 함께 탐구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일상과 대학 공동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고민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인의 선택과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원의 아침밥’ 기부금 재능중학교 학생 복지로 이어져

총학생회·대의원회·총동문회 연대 나눔 실천 우리대학 총학생회, 대의원회, 총동문회는 1월 5일 ‘천원의 아침밥’ 운영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재능중학교에 기탁하여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금은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교내 축제 기간 운영된 플라마켓 수익 등을 통해 마련됐다. 재능중학교는 이 기부금을 중간·기말고사 기간 ‘아침밥 먹기 이벤트’ 등 학생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국 뷰티기업·교육기관과 손잡고 K-뷰티 글로벌 확장
 산둥화의건중의보양그룹, 예미직업훈련학교와 3자 MOU
 우리대학은 1월 19일 중국 산둥화의건중의보양그룹, 예미직업훈련학교와 글로벌 K-뷰티 인재양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남식 총장, 원진 산둥화의건중의보양그룹 회장, 이정 예미직업훈련학교 총장, 조민경 해운대 에스테틱 대표가 참석했다. K-뷰티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구축, 뷰티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확대, 화장품·미용기기 등과 연계한 기술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제주지역 천연자원 기반 뷰티산업 활성화 모색
 제주화장품기업협회-제주산학융합원과 MOU
 우리대학은 1월 3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 차원으로 제주지역 화장품 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제주화장품기업협회와 제주산학융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뷰티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대학은 제주지역의 천연자원 기반 화장품 산업과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공주 제민천 탐방, '로컬 인사이트 트립(Local Insight Trip)'
 세종 조치원과 공주 제민천 방문, 로컬 브랜딩 사례 조사
 우리대학은 작년 12월 24일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성공을 위해 '로컬 인사이트 트립(Local Insight Trip)' 프로그램을 세종시 조치원과 공주시 제민천 일대 탐방으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고유의 공간과 스토리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로컬콘텐츠의 가치와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리대학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산과 청년의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성장 전략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대학과 가장 가까운 현대시장과 상생협력 실천
 친환경 소비문화와 ESG 확산, 비닐봉투 2만 장 기증
 우리대학은 지역 시장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현대시장에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으로 제작한 친환경 비닐봉투 2만 장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현대시장과 상생 협력을 위해 체결한 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추진됐다. 우리대학은 2025년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으로 선정돼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교육과 프로젝트를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학생 참여형 지역 상생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로타랙트 클럽, 지역 어르신 대상 '재능나눔 의료지원 봉사'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송림종합사회복지관' 봉사활동 진행
 우리대학 0000과 로타랙트 클럽(회장 홍수빈)은 인천 동구 송림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역 내 의료지원 서비스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로마 손마사지, 혈압·혈당 체크, 건강정보 상담 등을 제공해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도왔다. 봉사에는 총 67명의 로타랙트 회원이 참여해 7개월간 651명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인천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 비전선포식
 민간위탁 운영 첫 공식 행사, 지역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 밝혀
 우리대학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인천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1월 23일 '2025 성과보고 및 2026 비전선포식'을 열고 한 해 동안의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비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례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 개입 강화,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정신건강 복지의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서 소식



학생경력개발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스마트팜 농산물 나눔 활동'

친환경 농산물 나눔 통해 ESG 실천 및 지역 상생 실천

학생경력개발처는 2025년 혁신지원사업 ESG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마트팜 농산물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월 29일 인천 동구 송림 아파트길에서 대학의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 주민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미를 더한 것은 지역사회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산학·지역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했기 때문이다. 이날 나눔한 것은 표고버섯, 루꼴라, 무순 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최고등급 '우수' 획득

진로·취업 통합지원 체계 운영 성과 높게 평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해 대학의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수준과 진로·취업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우리대학은 핵심 성과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6년에도 지자체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진로 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고도화된 취업 지원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국제교류협력센터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와 AI·첨단제조 교육협력 MOU

제조현장 적용 Physical AI 기반 교육 공동 추진

우리대학은 1월 16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Arizona State University, ASU)와 AI·디지털 전환 기반 산업 밀착형 고등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애리조나주립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2026 ASU President Summit' 공식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글로벌 직업교육 모델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ASU 첨단제조공학센터 센터장인 비닐 스타얼리(Binil Starly) 교수와 협력해 제조현장에 적용되는 Physical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학과 소식

보건의료행정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합격률 100%' 쾌거

제42회 국가시험 응시생 전원 합격, 전국 평균 합격률 57.3% 크게 상회

보건의료행정과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한 '제42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생 전원이 합격했다. 응시생 100% 합격은 전국 평균 합격률 57.3%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여서 특히 주목된다. 보건의료행정과의 전공 이론과 실습을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국가시험 전원 합격이라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행정과는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으로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EK그룹 키드키즈 PLAY공모전 은상 수상

인형극으로 '웃음 가득 놀이상' 수상

유아교육과가 1월 29일 키드키즈 PLAY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EK그룹에서 운영하는 영유아교육 대표 플랫폼 키드키즈에서 '키드키즈 PLAY 공모전'으로 '놀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취지에서 열린 공모전이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그림자 인형극 '비토의 하루'로 '웃음 가득 놀이상'을 수상했다. 이를 계기로 유아교육과는 EK그룹과 산학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예비교사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바이오테크과

2026 ICPC 국제학술대회 금상 수상

3D 프린팅 기반 미세유체소자 제작공정 연구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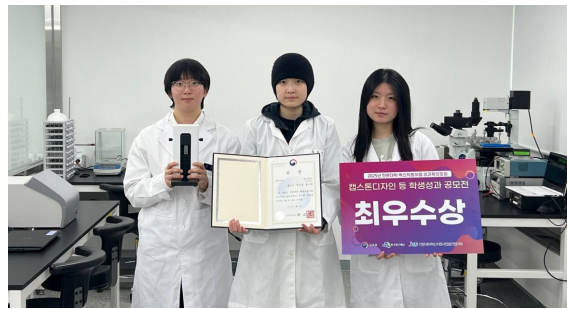
바이오테크과 연구팀이 국제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남정훈·한병조 지도교수가 이끄는 바이오메디컬연구팀은 1월 16~17일 국립횡성순채원에서 열린 '2026 ICPC 국제창의논문학술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는 고가의 장비와 복잡한 공정을 요구하던 기존 미세유체소자 제작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 저온 가공이 가능한 열가소성 수지와 3D 프린팅 기술을 결합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제작공정을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전국 캡스톤디자인 공모전 '교육부장관상' 수상

적용성 높은 바이오 분석 플랫폼 제안, 교육·연구 우수사례 선정

바이오테크과 학생연구팀이 1월 27일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열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팀은 남정훈 교수가 지도하는 홍수지 학생(팀장), 박수정·홍수영 학생으로 구성된 '나노엑스(NanoX)팀'이다. 이 연구팀은 지난해 환경부장관상 수상에 이어 올해 교육부장관상까지 연이어 수상하여 바이오테크과의 우수한 교육역량과 체계적인 학생 지도의 성과를 반증하고 있다.



드론영상과

박윤수 교수, '대한민국 드론 공로상' 수상

신기술 교육과 AI 드론 인재 양성 공로 인정

드론영상과 박윤수 학과장이 '드론인의 밤' 시상식에서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드론 공로상'을 수상했다. 작년 12월 1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로얄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드론인의 밤'은 한 해의 산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이는 드론저널이 주최하고 드론기업연합회와 KBSN이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후원했다.



디지털경영과

채영일 교수, 프레젠테이션 교재 출간

아이디어의 논리적 구조화를 위한
명확한 길잡이

디지털경영과 채영일 교수가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프레젠테이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간 교재 『MS Office PPT: Easy Business Computing 3』(도서출판 청람)을 출간했다. 이 책은 대학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명확한 길잡이를 제시하고 있다. 채영일 교수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탄탄한 논리와 진정성 있는 소통에서 시작된다"라며, "이 책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주체적으로 관철하는 진정한 커뮤니케이터로 거듭나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간호학과

이윤주 교수, 국회자살예방대상 '소방청장상' 수상

16년간 대학·지역·의료현장 연계
자살예방 활동 공로 인정

간호학과 이윤주 교수가 작년 12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윤주 교수는 16년간 대학과 지역사회, 의료현장을 아우르는 자살예방 활동을 지속하며 공공 자살예방 정책의 현장 적용과 실행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윤주 교수, 인천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취임

지역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주력,
산학협력 성공 사례

간호학과 이윤주 교수가 인천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으로 1월 1일부터 취임했다. 인천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미추홀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아동·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정신건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만성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청년·아동·청소년 마음건강사업, 중독 예방사업, 자살 예방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윤주 교수는 정신간호학 전공자로 정신건강 분야의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평생교육원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 정책 협의회’ 개최

완전통합 교육모델 운영 성과 공유, 정책 지원 방향 논의



우리대학은 1월 14일 교내에서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 정책 사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강경숙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을 비롯해 최소레 재능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청인학교 등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대학형 전공과 운영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대학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능대학교는 인천청인학교와 함께 2022년부터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완전통합형 대학형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성인지 전환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모델을 실천해 오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인천연일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이 부분통합형 모델을 도입해 단계적 성인지 전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 ‘완전통합형’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 수료식 개최

인천청인학교와 협력 14명 수료, 11명 취업 연계 성과

우리대학은 1월 28일 인천청인학교와 함께 재능관 이벤트홀에서 ‘2025년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 제3회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완전통합형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와 대학형 전공과 참여 학생 14명, 수료생 학부모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우리대학과 인천청인학교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재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완전통합형 대학형 전공과 모델’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영재교육원

2025학년도 유아동영재교실 수료식 개최

잠재된 가능성 조기 계발, 창의·논리 사고력 증진



우리대학 영재교육원이 2월 21일에 봉사관 중강당에서 2025학년도 유아동영재교실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유아동영재교실은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의 취학전 5세 유아~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매달 1, 3번째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초등학생의 잠재된 가능성을 조기부터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

동을 함으로써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192명의 학생들 중 중간 입학한 학생 14명을 제외한 17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4학년 과정을 수료 후 학생들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원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얻게 된다.

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

성장의 순간, 또 다른 출발

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 제41회 졸업식 및 제42회 입학식 실시

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은 지난 2월 20일 제41회 졸업식을 개최하며 한 해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53명과 학부모 100여 명, 재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진이 함께해 아이들의 첫 졸업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졸업생들은 졸업장과 기념 선물을 받은 뒤, 졸업을 기념해 준비한 합창 공연을 선보였다. 아이들의 노래에는 부모님께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그동안의 성장과 추억을 함께 떠올리게 했다. 짧지만 진심 어린 노랫말은 졸업식장을 따뜻한 울림으로 채웠고, 참석한 학부모들 에게도 깊은 감동을 전했다. 이어 1년간의 교육과정이 담긴 작품 전시와 문집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 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은 총 3,97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한편, 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은 3월 4일(수) 2026학년도 제42회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입학식에는 이남식 총장과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참석하여 어린이들의 입학에 축하하였다. 이날 이남식 총장은 배려와 경청이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응원하였으며, 김연희 원장은 어린이가 행복한 유치원, 교사가 꿈과 보람을 느끼는 유치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재능중학교

2026학년도 재능중학교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 '꿈을 향한 여정, 그 소중한 길위에'

희망찬 첫걸음, '책날개 입학식'으로 따뜻한 출발 응원

재능중학교가 2026학년도 신입생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새로운 꿈을 향한 여정, 그 소중한 길위에서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재능중학교는 올해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운영으로 미래 지향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월 24일 재능대학교 이벤트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월 3일 입학식이 교직원과 재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박정희 교장선생님은 환영사에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새롭게 출발하는 신입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입학식에서는 '읽고, 걷고, 쓰다(읽걷쓰)'와 함께하는 '책날개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신입생들에게 『오늘도 열리는 일기장』 외 14종의 책을 선물하며, 건강한 관계 형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신입생 대표 선서에서는 학생들이 성실한 학업 태도와 올바른 품성을 갖추겠다는 다짐을 하며,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는 뜻깊은 순간이 연출되었다.



재능교육

전국을 시의 향기로 물들인 국내 최고 권위 '재능시낭송대회'

제35회 재능시낭송대회 본선 대회 성황리 마무리

매년 전국을 시의 향기로 물들이는 재능시낭송대회가 지난 12월 6일 오후 1시 서울 혜화동 JCC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학생부와 성인부 통합으로 본선 대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재능시낭송대회는 재단법인 재능문화, 한국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재능교육, 재능TV, 재능시낭송협회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전국 규모 시낭송 경연대회로 지난 35년간 초등부 18,240명, 중고등부 4,535명, 성인부 14,163명이 참가하여 성인부에서 시낭송가 594 명을 배출했다.

제35회 재능시낭송대회는 지난 3~6월에 1, 2차 온·오프라인 예선대회에 접수한 619명 참가자 가운데 입선자 58명을 선정하여 최종 본선 경연을 펼쳤다. 성인부에서는 '역전 사진관집 이충(신경림 시)을 낭송한 신은자님(울산)이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차지해 상장과 시낭송가증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3백만원을 받았다. 금상은 '바다에서 나는 부활한다(정일근 시)'를 낭송한 이은아님(광주)으로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초등부에서는 김태운(매곡초2) 학생이 '해바라기처럼(정완영 시)'으로, 중고등부에서는 서한결(아산중2) 학생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신동엽 시)'로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참가자들의 시낭송 경연 외에, 이날 본선에서는 어린이 노래그룹 '작은평화'와 재능시낭송협회가 멋진 축하 공연을 선보였다.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노래와 시낭송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세대와 장르가 함께 숨 쉬는 따뜻한 공연에 많은 관객들이 큰 호응과 박수 갈채로 화답했다.

이날 본선은 당일 유튜브 <재능시낭송TV>로 전국에 생중계 되었다. 본선 대회의 녹화 편집본은 재능TV 채널을 통해 12월 말에 방영되었다.



재능교육 '스스로학습시스템', 18년 연속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재능교육의 철학을 구현하는 스스로학습법, '퍼스트클래스 브랜드'로도 지정

재능교육의 '스스로학습시스템'이 한국소비자포럼에서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학습지 부문에서 18년 연속 수상했다.

재능교육의 '스스로학습시스템'은 학습지 부문에 18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되며 '퍼스트클래스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본 시상식에서 10년 이상 수상 브랜드로 지속 선정될 경우에는 '퍼스트클래스 브랜드'로 지정된다. '스스로학습시스템'은 재능교육의 철학을 구현하는 스스로학습법의 한 요소로써, 개인별·능력별 완전학습을 실현하는 지능형 적응 학습 관리 체계 및 프로세스를 말한다. 스스로학습시스템은 적응형 평가와 지능형 진단 처방 시스템에 의한 진도 결정 및 프로그램식 스스로 학습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공부하며, 진도 상담을 거쳐 최종 등급의 학습을 마치게 된다. 수상에 나선 재능교육 백규태 대표는 "2026년 교육 업계를 이끌어갈 대표 브랜드로 재능교육의 스스로학습시스템을 선정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재능교육만의 맞춤형 진단 및 처방을 학습자 별로 더욱 개인화하여,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스스로학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재능그룹 웹사이트, 2025년 'GDWEB 디자인 어워즈' Winner Prize 수상

신뢰받는 교육 브랜드로 '토탈 에듀테크 기업'으로 지속 성장



재능그룹 웹사이트가 2025년 'GDWEB 디자인 어워즈'의 '기업/브랜드 웹사이트' 부문에서 'Winner Prize'를 수상했다. 재능그룹은 '재능교육'을 위시한 '에듀테크, 방송, 문화, 인쇄, 유통' 등의 분야 관계사들로 이루어진 종합 교육 문화 기업이다.

재능그룹 웹사이트는 재능교육을 위시한 관계사들이 지난 49년 간 '스스로학습 철학'을 실천하며 쌓아 온 '신뢰 받는 교육 브랜드' 이미지를 탁월한 사용자 경험, 일관되고 절제된 UI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브랜드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용자 경험 및 디자인 구현'을 인정 받아, '2025년 'GDWEB 디자인 어워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재능그룹은 1977년 창립 이래 '보다 나은 교육을 통한 보다 나은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온 종합 교육 문화 기업이다. 재능교육을 비롯한 재능방송, 재능e아카데미, 재능인쇄, 재능유통, 재능문화, 재능셀프러닝과 재능대학교 등 관계사들이 종합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 교육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토탈 에듀테크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영화 추천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감정의 의미

영화, <만약에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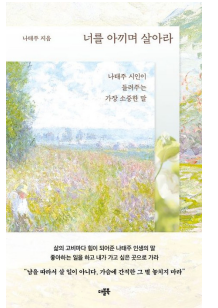
영화 <만약에 우리>(김도영 감독, 2025)는 우연한 재회와 과거의 기억을 통해 인연과 선택의 의미를 차분하게 풀어내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화려한 사건이나 극적인 전개보다는 시간이 흐르며 변해 가는 감정과 관계의 현실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이야기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시작됩니다. 은호는 비행기 안에서 약 10년 만에 전 애인 정원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태풍으로 인해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면서 두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영화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이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과 인연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환경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작품은 자극적인 전개보다는 감정의 흐름과 인물의 관계 변화에 집중하며 관객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떠올리며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과거의 선택과 인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점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학생 기자 박민서

책 추천

지친 마음을 위한 따뜻한 시 한잔

나태주의 <너를 아끼며 살아라>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나태주의 시집 <너를 아끼며 살아라>(더블북, 2025)는 바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전하는 시집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이 시집에서 거창하거나 어려운 표현이 아닌, 일상 속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삶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특히,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지금의 나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짧은 시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를 자주 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의 여유 시간을 활용해 읽을 수 있습니다.

“쓸쓸해져서야 / 보이는 풍경이 있다 / 버림받은 마음일 때에만 / 들리는 소리가 있다”(『길1』 중)

이 작품은 성공이나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쉬운 사회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읽는 동안 큰 감정의 자극보다는 차분한 성찰을 남기며,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학생 기자 박민서

함께 알아보아요

AI의 시대

정말 대학 생활에 AI 사용은 독이 든 사과일까?



Chat gpt, 제미니, 그록 등 4차 산업 혁명으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AI는 이미 우리들의 삶에 밀접한 도움을 준다. 하지만 그만큼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거짓 정보와 딥페이크를 제작 유포해 사회에 혼란을 주고 인간의 편향된 데이터를 통해 또다른 차별을 만들 수도 있다. AI를 사용해 만든 음악과 그림은 무단 학습을 통한 저작권 위반과 표절로 예술적 윤리가 위협된다. AI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강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구성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제도적으로 AI 사용과 개발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법으로 규제한다. 최근에 시행된 AI 기본법의 AI 영상 표시 의무화는 AI 영상의 워터마크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AI 생성 영상을 표기하는 제도를 진행해 AI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AI의 문제점인 AI가 인간의 교육에 영향을 주면서 생기는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AI를 사용해 과제와 문서 작성을 하는 학생은 매우 많다. 과제에서 활용해도 된다. 하지만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AI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게 문제다. AI의 작성문에 검토와 수정, 사실 일치 여부를 안 하는 사용자가 정말 많다. 이것은 마치 가짜 뉴스나 잘못된 나무위키의 글을 복사해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싶다면 AI를 활용해도 사용자 스스로가 수정하고 검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대학생들에서도 AI로 전부 과제를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AI로 작성한 부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기본적인 정보나 전문 지식은 AI에게 맡기고 자신만의 의견과 생각을 첨가해 관점의 전환이나 반대 의견 등을 제시해 슬기롭게 사용하면 좋겠다.

학생 기자 한래균

우리의 집중력, 이대로 괜찮은가

편리함을 얻고 뇌를 망가뜨리는 짧은 동영상



미디어와 친숙한 시대인 만큼 숏폼(짧은 동영상)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어 인기가 많은데, 이러한 장점에서 인지와 정신 건강에 피로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의 한 심리학 연구팀에서 짧은 동영상의 소비가 주의력, 억제력을 눈에 띄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다른 연구진은 1970년 제시된 '이중 과정 이론'을 근거로 하여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자주 노출되면 뇌가 느린 정보 처리, 즉 독서나 문제 해결처럼 인내가 필요한 활동들을 회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시간과 조물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로 설명하고 싶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지혜롭게 살아가려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오로지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독촉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해진 시간에 집착하여 더 많은 정보를 한번에 얻으려는 것보다 천천히 연구하고 알아가며 얻은 정보가 더욱 값지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2026년에는 짧은 동영상보다 책이나 천천히 설명된 동영상을 시청하여 뇌와 집중력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사진은 AI를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편집장 권예은

함께 알아보아요

손에서 피어나는 소통

간단한 수어 배우기, 다양한 소통을 위해



지난 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이었다는 점, 모두 알고 계셨나요? 한국수어의 날은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날로 한국수화언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들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유의미한 날입니다. 저는 농인과 건청인의 사랑 이야기인 <손끝의 연연>이라는 작품을 통해 수어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데요, 간단한 수어를 알려드리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녕하세요”는 오른손바닥으로 주먹을 쥐 왼팔을 끌어내린 뒤, 두 주먹을 쥐고 동시에 아래로 내립니다. 두 번째,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두 주먹의 검지 손가락을 폄다가 가운데로 모아 마주댄 뒤, 두 손을 약간 구부려 양쪽 가슴 앞에서 위아래로 엇갈리게 움직입니다. 저는 수어에 대해 알아보면서 문득 수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수어 동영상상을 찾아 하나하나 따라하며 익히고 있습니다. 농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다면, 수어를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장 권예은

슬기로운 학교 사용법

알고 있으면 좋을 ‘학생들의 쉼터’

우리대학 서문으로 올라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창의관 1층에는 소파로 이루어진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강의 시작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나 공강 시간이 애매하게 비었을 때, 이곳은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쉼터가 된다.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피곤한 날에는 눈을 붙여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특정 학과나 일부 학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 우리 재능대학교 학생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다. 그렇기에 이곳에서는 정숙을 지키고 자리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취식은 금지되어 있다. 강의 전 피곤할 때 잠시 쉬어가고 싶다면, 창의관 1층 휴식 공간에 한 번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작은 휴식이 오늘 하루의 집중력과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학생 기자 성보미



“스펙도 돈이다.”...

험난한 취업의 과정, 비용의 장벽

경쟁이 과열된 취업 시장에서 토익이나 자격증은 이제 기본 중의 기본이 됐고 인턴 경험과 대외활동, 대회 경험 등은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인식이 취업 시장에 만연해 있다.

실제로 본 기자도 자격증을 2개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고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80~100만원을 쓰게 되었다.

학생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지기에는 어려운 학생이 더 많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비용 때문에 무리하게 알바를 하거나 시험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취업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취업 준비 비용 확대와 교내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며 ‘능력’이 아니라 ‘비용’이 치열한 취업 시장의 장벽이 안 되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대학에서는 대학일자리플러스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접근성 좋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특화 취업지원을 통해 호주 해외 취업 또는 우수기업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 기자 한래균



3월 총회, 우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돈이 어디에 사용될까?”

대의원회는 3·6·9·11월마다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등록금 납부 시 함께 선택되는 학생회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앞으로 학생회비를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이는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이다. 대의원회와 총학생회는 우리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하지만 그 동안은 관심과 참여가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우리 스스로 버리지 말자. 관심이 크면 우리 대학생활은 더욱 풍성해진다. 참여가 크면 우리는 대학생활에 더욱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학생 자치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맞는 복지와 행사를 위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3월 총회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이 다음 달로 미뤄진다. 그러면 학생회비를 활용한 간식 이벤트나 축제 준비 등 다양한 행사들의 시작이 늦어질 수 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단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이번 3월 총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학생 기자 성보미



배움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나의 재능을 장점으로 만들어 내면의 목소리를 키우는 여정입니다

나를 더욱 나답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나만의 답을 발견하는 곳
우리의 열정이 지혜로, 지혜가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여러분의 꿈을 향한 도전에 **재능대학교**가 함께합니다.



항공서비스과 24학번 김수아

입학 032.890.7020~1
문의 ipsi.jeiu.ac.kr

